

2021-09

## 금융시장 브리프

2021. 09. 08.

### ● 글로벌(한국 포함) 경기회복·물가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9~10월 국내외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주요국 통화와 주가는 완만한 강세를 나타낼 전망

- 한국은행은 경기 개선, 물가 상승,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를 고려하여 11.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75% → 1.00%) 추가 인상(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악화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인상 시기가 2022.1분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
- 미 연준은 9.21~22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어 완만한 오름세(국고 3년물 8월말 1.40% → 9월말 1.45% → 10월말 1.48%)
- 선진국 국채금리는 백신접종 가속화(미국 내 booster shot 포함)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재정지출 확대에 상승(미 국채 10년물 8월말 1.31% → 9월말 1.33% → 10월말 1.35%)
- 원화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강세압력이 다소 우세(원/달러 8월말 1,160 → 9월말 1,155 → 10월말 1,150)
- 위안·유로화·엔화는 서비스업 정상화 기대(유럽), 외국인 국채투자자금 유입(중국), 신임 총리 선출 이후 재정지출 확대 예상(일본)으로 완만한 강세
- 한·미 주가지수는 기업실적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오름세 지속(KOSPI 8월말 3,199 → 9월말 3,230 → 10월말 3,260)
- 은행업 주가지수는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회복에 의한 NIM 개선,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로 소폭 상승(8월말 1,980 → 9월말 2,010 → 10월말 2,030)
- 그린스탁지수(WGSI)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예상으로 오름세(8월말 1,958 → 9월말 1,970 → 10월말 1,990)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중 팀장(02-2173-0568)

ESG·기업금융연구실 성지영 수석연구원(02-2173-0561)

경제·글로벌연구실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경제·글로벌연구실 박시연 인턴(02-2173-0563)

경제·글로벌연구실 곽지희 인턴(02-2173-0558)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 I. 9~10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 1. 금리

#### 가. 국내금리

##### ■ 한국은행은 10.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11.25일 금통위에서 25bp(0.75% → 1.00%) 추가 인상할 전망

- 10월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조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9월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없음)하기보다는 직전 기준금리 인상(8.26일) 효과, 8~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미 연준 테이퍼링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할 전망

\* 금통위는 8.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떤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

- 11월 금통위에서는 수출 호조, 물가 오름세, 백신 보급과 대규모 초과저축에 기반한 소비 반등, 추경 등 확장적 재정 기조,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가 25bp(0.75% → 1.00%)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은행가계대출(기간 중 증감, 조원): 5월 -1.6 → 6월 6.3 → 7월 9.7(5대 은행 6.2) → 8월(5대 은행) 3.5

\* 주택매매가격(전년동월비, %): 5월 13.0 → 6월 13.9 → 7월 14.3 → 8월 15.1

- 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악화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22.1분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상존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명): 7.31일 1,539 → 8.11일 2,222(고점) → 9.6일 1,597

##### ■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전망: 8월말 1.40% → 9월말 1.45% → 10월말 1.48%

- 국내외 경기 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나, 금리 인상 사이클 선반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3년물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폭이 제한

\* 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스프레드(bp): 2011.3.9일 108 → 2019.8.19일 -41(저점) → 2021.7.15일 100(10년 4개월래 최대) → 9.6일 71

■ 국고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8월말 1.91% → 9월말 1.93% → 10월말 1.95%

- 지표물가 상승,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에는 상승압력이 존재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2022년 이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 국내외 채권 금리차 확대, 보험사 등의 장기물 투자수요로 장기금리 상승폭이 크게 제한

\* 국고채 10년물-미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21.1.4일 81 → 3.29일 26(단기 저점) → 7.19일 78(6개월래 최대) → 9.6일 65

\* 국고채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5.14일 104(10년 4개월래 최대) → 9.6일 51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7월	8월	9월(F)	10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0.75	0.50	0.75	0.75	0.75
국고채 3년	기말, %	0.98	1.50	1.42	1.40	1.45	1.48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00	1.87	1.91	1.93	1.95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8.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8월 국고채 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sup>1)</sup>)

- 8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0%로 전망치(1.48%)를 크게 하회
- 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 선반영으로 국고채 금리가 예상과 달리 하락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9.21~22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2022년까지 유지할 가능성(forward guidance)을 시사
- 8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9월(21~22일)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 7월 FOMC 의사록(8.18일 공개)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올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견지
- \* 8.27일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도 경제의 개선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적절하나,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 \* 비농가 고용(전월비, 만명): 5월 61.4 → 6월 96.2 → 7월 105.3 → 8월 23.5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8월말 1.31% → 9월말 1.33% → 10월말 1.35%

- 미 국채금리는 물가·임금지표 상승,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점차 높아지겠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2022년 이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상존하여 금리 상승폭이 제한
  - \* 실업률(%): 5월 5.8 → 6월 5.9 → 7월 5.4 → 8월 5.2
  - \* 근원물가(core PCE 전년동월비, %): 5월 3.5 → 6월 3.6 → 7월 3.6
  - \* 전산업 시간당 임금(전년동월비, %): 5월 1.9 → 6월 3.7 → 7월 4.1 → 8월 4.3
  -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월 82.9 → 6월 85.5 → 7월 81.2 → 8월 70.2(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
  - \*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8.24일 미 하원을 통과,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은 9.27일까지 표결 처리 예정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8월말 -0.38% → 9월말 -0.36% → 10월말 -0.34%

-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독일 총선(9.26일) 이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으로 독일 국채금리는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하겠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상존하여 금리 오름세가 제약
  - \* 유로존 CPI(전년동월비, %): 5월 2.0 → 6월 1.9 → 7월 2.2 → 8월 3.0
  - \* 서비스업PMI(기준선=50): 5월 52.8 → 6월 57.5 → 7월 62.2 → 8월 61.5
  - \* 8.24일 포르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의 지지율이 23%로 15년 만에 보수연합을 추월하여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규율 완화(재정지출 확대) 기대가 점점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 8월말 0.71% → 9월말 0.73% → 10월말 0.75%

- 코로나 변이 확산에도 치명률 하락에 따른 정부의 봉쇄조치 완화, 영란은행의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로 영국 국채금리는 상승압력이 우세
  - \* 코로나 확진자수(만명, 7일 이동평균): 7.19일 4.5 → 7.31일 2.8 → 8.31일 3.3(백신 접종률은 8.31일 기준 1차 72%, 2차 64%)
  - \* 7월 소매판매는 봉쇄조치 전면 해제(7.19일)에도 불구하고 전월비 2.5% 감소
  - \* BOE는 8.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0.10%)와 연간 자산매입 목표액(8,950억파운드)을 유지. 2021.4Q~2022.1Q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월 전망 대비 1.5%p 상향 조정(2.5% → 4.0%)했으며, 향후 2~3년간 완만한 긴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 8월말 0.03% → 9월말 0.04% → 10월말 0.05%

- 스가 총리 불출마 선언, 재정지출 확대,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에 연동하여 완만하게 높아지겠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세 부진,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국채금리 상승폭이 크게 제한
  - \* 스가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9.3일)함에 따라 9.30일 사임할 예정이며, 차기 총재의 재정지출 확대 기대 등으로 니케이225 지수는 하루만에 2.0% 급등
  - \*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7일 평균, 명): 6.30일 1,501 → 7.31일 7,372 → 8.31일 21,679
  - \* 9.1일 BOJ 부총재는 원자재 가격 강세에 의한 CPI의 단기적인 상승세만 고려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설부르게 긴축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발언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7월	8월	9월(F)	10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60	1.22	1.31	1.33	1.35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35	-0.46	-0.38	-0.36	-0.34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80	0.57	0.71	0.73	0.75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07	0.02	0.03	0.04	0.05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8.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8월 미 국채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sup>2)</sup>)

- 8월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31%로 전망치(1.26%)를 상회
-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8.27일)을 앞두고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어 미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2)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2. 환율

###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8월말 1,160 → 9월말 1,155 → 10월말 1,150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11월 예측) 기대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원화는 강세 압력이 다소 우세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5월 45.6 → 6월 39.8 → 7월 29.6 → 8월 34.9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5월 29.2 → 6월 44.8 → 7월 17.7 → 8월 16.7
  - \* 달러 인덱스(기말): 5월 89.8 → 6월 92.4 → 7월 92.2 → 8월 92.6

###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8월말 6.46 → 9월말 6.44 → 10월말 6.42

- 중국 실물지표 둔화, 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외국인외의 채권 투자자금 유입으로 위안화 강세 압력이 다소 우세
  -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4월 9.8 → 5월 8.8 → 6월 8.3 → 7월 6.4
  -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4월 17.7 → 5월 12.4 → 6월 12.1 → 7월 8.5
  - \* 정부가 사교육·부동산·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소수의 번영이 아닌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정책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부각
  - \* 9.2일 인민은행은 올해 재대출(시중은행에 대한 저리융자) 규모를 3천억위안 추가로 늘려 지방소재 은행들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8월말 110.0 → 9월말 109.8 → 10월말 109.5

- 스가 총리 불출마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엔화는 강세압력이 우세하나, 미·일 간 금리차 확대, 일본 내 코로나 재유행이 강세폭을 제한
  - \* 미국-일본 금리 스프레드(10년물 국채, bp): 2020.2.12일 168 → 8.4일 49(단기 저점) → 2021.3.31일 165(13개월래 최대) → 7.31일 120 → 9.6일 128
  - \* 8.17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7개 지역에 추가 발령했으며, 8.25일에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 8곳을 추가

###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8월말 1.181 → 9월말 1.186 → 10월말 1.190

- 역내 높은 백신접종률과 EU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의한 서비스업 경기 정상화 기대, ECB의 자산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으로 유로화는 다소 강세
  - \* 유로지역 서비스업 PMI(기준선=50): 6월 58.3 → 7월 59.8 → 8월 59.0
  - \* 9.1일 현재 EU의 백신접종률은 1차 기준 64.6%, 2차 기준 58.1%에 달하며, 최근 스페인 호텔 예약률이 50%를 상회하고, 백신여권 도입 이후 유럽 항공편도 증가
  - \* 8월 유로존 CPI는 전년동월비 3.0% 올라 7월(2.2%) 대비 큰 폭 상승(10년래 최고)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7월	8월	9월(F)	10월(F)
원/달러	기말, 원	1,086	1,160	1,150	1,160	1,155	1,15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55	6.46	6.46	6.44	6.42
엔/달러	기말, 엔	103.3	110.5	109.7	110.0	109.8	109.5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2	1.170	1.187	1.181	1.186	1.19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8.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8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3)</sup>**

- 8월말 원/달러 환율은 1,160원으로 전망치(1,145원)를 소폭 상회
-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주식 대규모 순매도, 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원화는 예상과 달리 약세

**3. 주가지수**

**■ KOSPI 상승 전망: 8월말 3,199 → 9월말 3,230 → 10월말 3,260**

-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바이오·플랫폼 업체 등의 성장 전망,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KOSPI 지수에 상승압력이 우세
  - 다만, 코로나 재확산,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 우려,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주가지수 상승폭이 제한
  -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6월 12.0 → 7월 11.4 → 8월 11.5
  - \* 8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5.5 외국인 -6.4, 기관 +0.8

**■ 은행주 상승 전망: 8월말 1,980 → 9월말 2,010 → 10월말 2,030**

3)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국내 은행주는 가계대출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 등 정책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회복에 의한 NIM 개선,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로 상승흐름을 예상
  - 다만, 카카오뱅크 관련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에 이어 의무보유확약 해제(9.6일)에 따른 기관 물량 출회 가능성이 전체 은행업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소지
    - \* 9.2일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뱅크 주식 1조원 가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

■ **그린스탁지수(WGSI4) 상승 전망: 8월말 1,958 → 9월말 1,970 → 10월말 1,990**

- 국내 그린주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로 탄소포집·저장(CCUS) 관련 에너지효율과 수소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흐름이 이어질 전망
  - \* 8.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CCUS 관련 R&D 지원 확대와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2021.3분기 수소기반전력 구매의무화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발표 예정

■ **KOSDAQ 상승 전망: 8월말 1,038 → 9월말 1,060 → 10월말 1,070**

-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산업 수혜, 주요 벤처기업 IPO 추진 등으로 KOSDAQ 지수가 상승하겠으나,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 우려로 상승 여력이 제한
  - \* 8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5, 외국인 +0.3, 기관 -1.7

■ **S&P500 상승 전망: 8월말 4,523 → 9월말 4,560 → 10월말 4,580**

-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업실적 개선,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S&P500 지수에 상승압력이 점증하겠으나, 지수 고평가 부담, 증세 추진, 델타 변이 확산세,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으로 상승폭이 제약

4) 그린스탁지수(WGSI, WFRI Green Stock Index):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43개 클린 에너지 펀드에 담긴 641개 종목 중 그린 비즈니스(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연관 매출액이 10% 이상인 92개 종목을 시가총액('20.1월=1,000)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국내외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7월	8월	9월(F)	10월(F)
KOSPI	기말	2,873	3,300	3,202	3,199	3,230	3,260
은행업 주가지수	기말	1,557	-	1,891	1,980	2,010	2,030
WCSI	기말	1,772	2,017	1,952	1,958	1,970	1,990
KOSDAQ	기말	968	1,100	1,031	1,038	1,060	1,070
S&P 500	기말	3,756	4,550	4,395	4,523	4,560	4,58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8.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8월 KOSPI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5)</sup>

- 8월말 KOSPI는 3,199으로 전망치(3,255)를 소폭 하회
-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반도체 업황 우려, 원화 약세로 KOSPI 지수가 예상과 달리 약세

※ 8월 은행업 주가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B등급)

- 8월말 은행업 주가지수는 1,980로 전망치(1,910)를 상회
- 양호한 2분기 실적,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은행주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확대

※ 8월 그린스탁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

- 8월말 WCSI는 1,958로 전망치(1,972)에 대체로 부합

5) KOSPI, 은행업 주가지수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 **8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8.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50%→0.75%) 인상**

- 델타변이 확산 우려에도 국내경제의 양호한 회복세,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금융불균형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인상
  - \* 기대 인플레이션(%): 5월 2.2 → 6월 2.2 → 7월 2.3 → 8월 2.4
  - \*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설비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에 따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댄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금리인상도 시사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2bp 하락(7월말 1.42% → 8월말 1.40%)**

- 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으로 8.19일 1.36%로 하락한 뒤,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8.24일 1.44%까지 올랐으나, 8.26일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선반영 인식에 1.40%까지 반락
  -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명): 7.31일 1,539 → 8.11일 2,222(고점) → 8.31일 1,371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4bp 상승(1.87% →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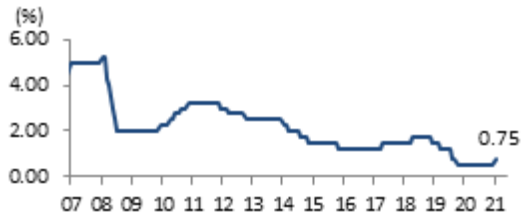
- 아프간 지정학적 리스크, 델타변이 확산에 의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증시 조정으로 8.20일 1.85%까지 하락했던 국채금리는 위험회피 심리 완화, 연준 테이퍼링 경계감에 따른 해외금리 상승에 연동하여 반등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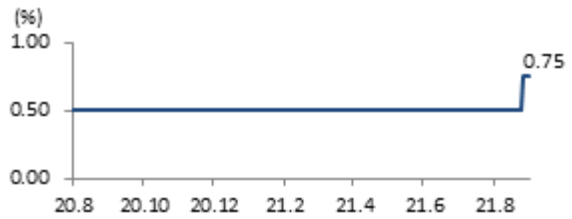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5월	6월	7월	8월	
금리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75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846	0.976	1.133	1.448	1.227	1.448	1.417	1.395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430	1.713	2.057	2.092	2.179	2.092	1.874	1.912
스프레드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35	48	63	95	73	95	92	65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58	74	92	64	95	64	46	52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75	80	32	62	58	62	65	60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195	228	235	230	237	230	234	230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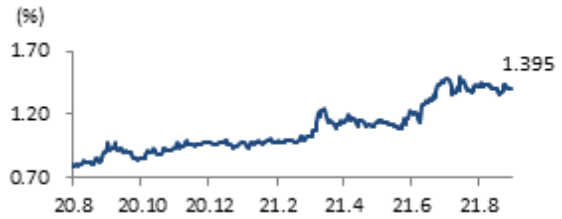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국고채 3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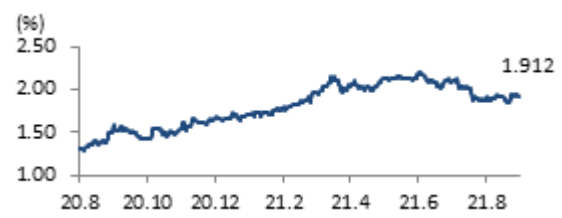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일간)



국고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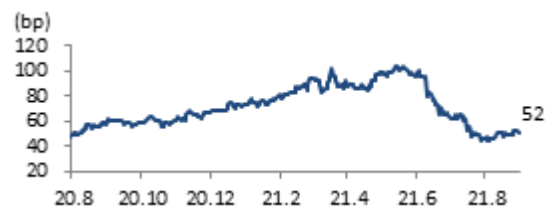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일간)



국고채 3년·기준금리차(일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2 | 8월중 해외금리 동향

### ■ 미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인플레이션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고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속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
  - \* 연준이 8.18일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올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

###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9bp 상승(7월말 1.22% → 8월말 1.31%)

-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지표 둔화로 8.19일 1.24%까지 낮아졌으나, 8.27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테이퍼링 경계감이 확대되어 1.35%(8.13일 이후 최고치)로 급등한 후 소폭 하락
  -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월 82.9 → 6월 85.5 → 7월 81.2 → 8월 70.2(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
  - \* 서비스업 PMI(기준선=50): 5월 70.4 → 6월 64.6 → 7월 59.9 → 8월 55.2

###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8bp 상승(-0.46% → -0.38%)

- 유로존 경제 회복세에 따른 ECB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이 확대되며 8.31일 -0.38%까지 상승(1개월 내 최고치)
  - \* 유로존 CPI(전년동월비, %): 5월 2.0 → 6월 1.9 → 7월 2.2 → 8월 3.0
  - \* 로버트 홀츠먼 ECB 위원은 9월 회의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발언

###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bp 상승(0.57% → 0.71%)

-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경기 회복세, ECB의 매파적 발언에 의한 유로존 금리 상승에 연동하여 높아짐

###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bp 상승(0.02% → 0.03%)

- 연준 테이퍼링 경계로 8.11일 0.04%까지 상승했으나, 일본 주가 하락과 코

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8.17일 0.01%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미 국채금리와  
동조화로 0.03%로 반등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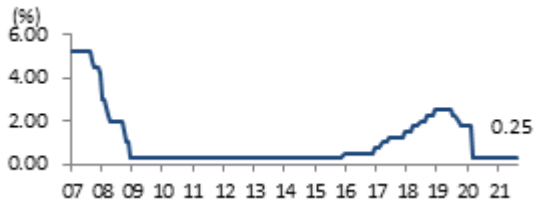
- \* 코로나 확진자 수(7일 이동평균, 명): 7.31일 7,372 → 8.27일 23,075(고점) → 8.31  
일 21,569
- \* 8.17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7개 지역에 추가 발령했으며, 8.25일에는 긴급사태 선  
포 지역 8곳을 추가

###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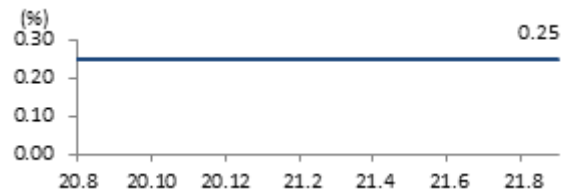
	단 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5월	6월	7월	8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684	0.913	1.740	1.468	1.594	1.468	1.222	1.309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522	-0.569	-0.292	-0.207	-0.187	-0.207	-0.461	-0.383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229	0.197	0.845	0.716	0.795	0.716	0.565	0.714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26	0.026	0.093	0.059	0.080	0.059	0.018	0.026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준 기준금리(월간)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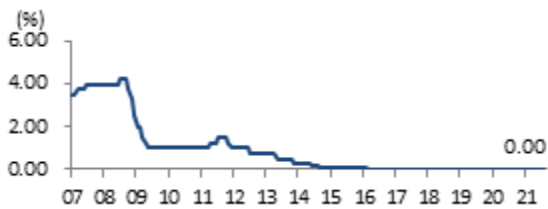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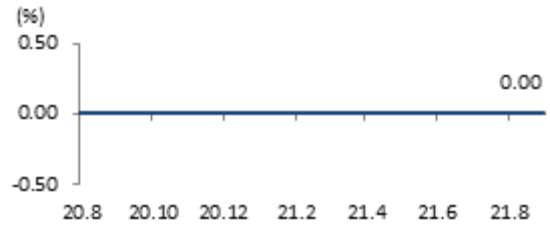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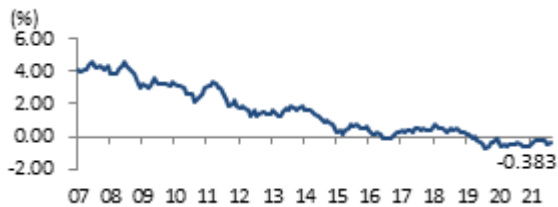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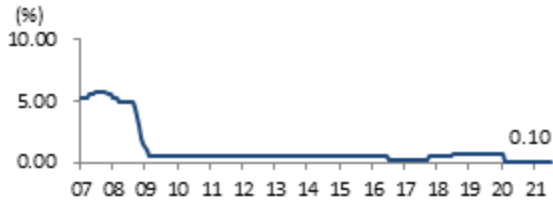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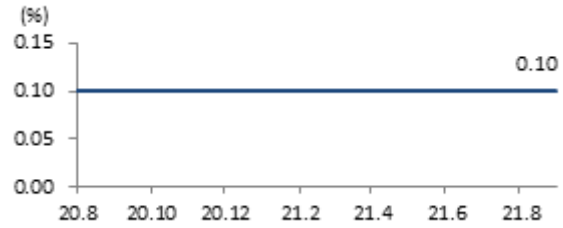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BOE 기준금리(월간)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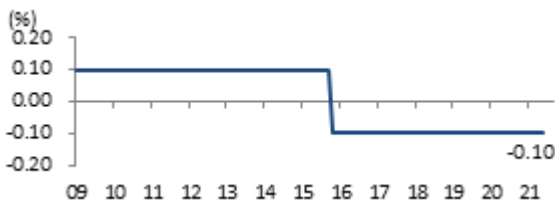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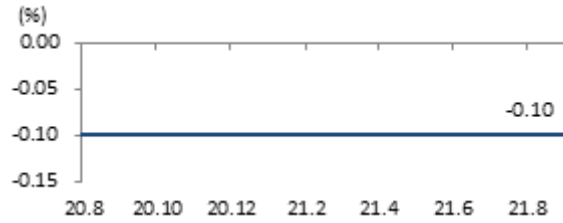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BOJ 기준금리(일간)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 **8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0.8% 상승(원화 약세, 7월말 1,150 → 8월말 1,160)**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미 달러화 강세(달러지수 7월 92.2 → 8월 92.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내수회복세 둔화 가능성,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를 반영하여 8.20일 1,180까지 급등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잭슨홀 연설 등으로 반락

\* 외국인 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 순매도(조원): 6월 0.9 → 7월 4.9 → 8월 6.1

■ **위안/달러 환율은 미미하게 하락(위안화 강보합, 6.4614 → 6.4607)**

-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 경기모멘텀 둔화 우려로 약세(8.20일 6.50)를 나타내던 위안화 가치는 추가 부양책 기대감, 저가매수세에 따른 중국 증시 반등으로 강보합 마감

\*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7.9%로 기저효과가 컸던 1분기(18.3%) 대비 하락했으며, 산업생산(6월 8.3% → 7월 6.4%), 소매판매(12.1% → 8.5%), 통관수출(32.2% → 19.4%) 증가율도 둔화

\* 인민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8.24일), 금융정책 수단(예: 지준율, 재할인, 재대출)을 활용한 농촌 개발 지원을 강조(8.27일)하여 금융시장에서는 지준율 추가 인하 기대가 점증

■ **엔/달러 환율은 0.3% 상승(엔화 약세, 109.7 → 110.0)**

- 미 국채수익률 상승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증시 반등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둔화로 상승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6.30일 141 → 7.30일 120 → 8.31일 128

\* 8.25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기존 도쿄도 등 13개 지역)에 8곳을 추가

■ **달러/유로 환율은 0.5% 하락(유로화 약세, 1.187 → 1.181)**

- 미국과 유로존 간 경기 회복속도 차이, 연준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ECB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8.19일 1.168까지 낮아졌으나, 파월 의장의 온건한 잭슨홀 미팅 발언, 유로존 물가지표 급등으로 반등



- \* 8월 유로존 CPI는 전년동월비 3.0% 올라 7월(2.2%) 대비 큰 폭 상승(10년래 최고)
- \* ECB는 7.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규모·속도를 유지하고, 새 인플레이션 목표치(대칭적 2%)에 도달할 때까지 일시적인 오버슈팅은 용인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수정 포워드가이드를 제시

주요 환율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5월	6월	7월	8월
원/달러(기말)	1,116	1,156	1,086	1,170	1,086	1,132	1,126	1,111	1,126	1,150	1,160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6.79	6.53	6.55	6.46	6.37	6.46	6.46	6.46
엔/달러(기말)	109.7	108.6	103.3	105.5	103.3	110.7	111.1	109.6	111.1	109.7	110.0
달러/유로(기말)	1.147	1.121	1.222	1.172	1.222	1.173	1.186	1.223	1.186	1.187	1.181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93.9	89.9	93.2	92.4	89.8	92.4	92.2	92.6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4 | 8월중 주가지수 동향

###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0.1% 하락 (7월말 3,202 → 8월말 3,199)

- 반도체 업황 우려, 중국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고점 논란, 원화 약세로 8.20일 3,061까지 낮아졌으나, 미국증시 반등, 환율 급등세 진정,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으로 하락폭이 축소
  - \* 8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5.5, 외국인 -6.4, 기관 +0.8
- 국내 은행주는 4.7% 상승(코스피 대비 4.8%p 강세)
  - 가계대출 규제, 델타 변이 확산,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수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2분기 실적,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하나금융(+3.7%), 우리금융(+3.7%), KB금융(+3.1%)이 상승(신한금융(-0.8%)은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하락)
  - 8.6일 상장 이후 급등(상장일 종가 대비 +31.8%)했던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규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폭이 축소(+17.3%)
    - \* 8월 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KB +667, 우리 +450, 하나 +436, 신한 -9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1.9% 높아짐(아시아 Top10 은행주도 0.9% 상승)
- 국내 그린주(WGSI)는 0.3% 상승(코스피 대비 0.8%p 상승)
  - 섹터별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전망으로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예: 에코프로에이치엔 +344.5%, 인스코비 +18.5%)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63.6%)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수소연료전지 시장 활성화 기대로 두산퓨얼셀(+11.9%), 에스퓨얼셀(+9.6%) 등 수소(+10.0%) 분야 주가도 호조
  - 반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한 풍력(-2.8%) 분야는 가장 크게 하락

### ■ KOSDAQ 지수는 0.7% 상승(1,031 → 1,038)

- 8.5일 1,060으로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반도체 업황 우려,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로 8.17일 1,011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등 마감
  - \* 8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5, 외국인 +0.3, 기관 -1.7

■ 선진국(MSCI DM) 증시는 2.3%, 신흥국(MSCI EM) 증시는 2.4% 상승

- 미국(+2.9%), 유럽(+2.6), 일본(+3.0%), 중국(+4.3%) 증시가 모두 상승

■ S&P500 지수는 2.9% 상승(4,395 → 4,523)

- 경제지표 부진, 조기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잭슨홀 연설, 하원의 예산 결의안 가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8.30일 4,529)를 경신

\* 7월 소매판매는 자동차·의류 등을 중심으로 감소 전환(6월 +0.7% → 7월 -1.1%)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3/4	4/4	21.1/4	2/4	21.5월	6월	7월	8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2,328	2,873	3,061	3,297	3,204	3,297	3,202	3,199
	KOSDAQ	676	670	968	848	968	956	1,030	982	1,030	1,031	1,038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2,367	2,690	2,812	3,017	2,976	3,017	3,069	3,141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1,082	1,291	1,316	1,375	1,376	1,375	1,278	1,309
	(미국)S&P500	2,507	3,231	3,756	3,363	3,756	3,973	4,298	4,204	4,298	4,395	4,523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23,185	27,444	29,179	28,792	28,860	28,792	27,284	28,090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3,194	3,553	3,919	4,064	4,039	4,064	4,089	4,196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3,218	3,473	3,442	3,591	3,615	3,591	3,397	3,544
은행주	WI500 <sup>1)</sup>	1,877	1,846	1,557	1,334	1,557	1,869	1,992	2,052	1,992	1,891	1,980
	우리금융	n.a.	11,600	9,730	8,580	9,730	10,100	11,450	11,150	11,450	10,850	11,250
	KB금융	46,500	47,650	43,400	37,550	43,400	56,200	55,800	58,800	55,800	51,300	52,9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27,600	32,050	37,450	40,600	42,450	40,600	39,150	38,850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28,100	34,500	42,800	46,050	46,550	46,050	43,450	45,050
그린주	카카오뱅크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83,900
	WGSI <sup>2)</sup>	980	1,015	1,772	1,405	1,772	1,938	1,978	1,853	1,978	1,952	1,958

주1: 은행업 주가지수(WI500)은 와이즈에프엔이 발표하는 WI26 업종분류 기준

주2: 그린스탁지수(WGSI)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산출하는 그린 비즈니스 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